

## 책세상, 《릴케 전집(전13권)》 완간해

전13권 가운데 10권이 국내 초역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7)의 문학세계를 집대성한 《릴케 전집(전13권)》(책세상)이 완간됐다. 2000년 2월 《기도시집 외》를 전집 제1권으로 펴낸 이후 1년만의 일로, 이번 전집은 1987년에 완간된 독일 인젤출판사의 《릴케 전집》을 번역저본으로 삼았다.

릴케는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랑과 고통, 그리고 신과 죽음의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을 발표, 토마스 만과 더불어 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았다. 번역자만 14명이 참여한 이번 전집의 가장 큰 의의는 초역본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동안 릴케의 작품은 극히 일부만 무작위적으로 발췌·중복번역돼 온 것이 사실. 하지만 이번 전집에는 전13권 가운데 10권이 국내 초역이다. 현실적인 언어감각을 갖춘 젊은 독문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하고, 각 작품에 자세한 해설을 단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의의다. 축적된 번역에 그치지 않고 릴케문학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전집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는 전집 제1권에서 제6권까지로, 섬세한 감수성과 탁월한 메타포로 씌어진 시모음이다. 사랑에 대한

희구와 종교적 감수성, 그리고 자연

풍광에 대한 경의가 가득한 시편을 접할 수 있다. 두번째는 전집 제7권부터 제9권, 그리고 제12권으로, 서사적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을 한데 모았다. 단편소설을 비롯해 청년시절에 발표한 희곡, 사랑·죽음·신의 문제들을 다룬 에세이들을 실었다. 세번째는 예술론 모음. 전집 제10권·제11권·제13권으로, 조각가 로댕에 대한 논평을 비롯해 릴케문학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술론이 펼쳐져 있다.

전집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 시집들·초기 시들·백의의 후작부인·기수 크리스토프 릴케의 사랑과 죽음의 노래·기도시집(김제혁) ▲형상시집·신시집·진혼곡·마리아의 생애·두이노의 비가·오르페우



스에게 바치는 소네트(김제혁) ▲완성시·프랑스로 쓴 시(고원 외) ▲헌시·시작노트(안철택 외) ▲삶과 노래·치커리·그대의 축제를 위하여(장영은) ▲시인이 직접 발표한 시와 유고(장순란) ▲삶의 저편으로·두 편의 프라하 이야기·마지막 사람들·사랑하는 신 이야기(권세훈) ▲황금빛 상자·사도·에발트 트라기·체육 시간·무덤 파는 사람(피종호) ▲첫서리·몰락의 시간·엄마·저 높은 곳에서 외(왕치현) ▲보르프스베데·로댕론(장미영) ▲현대 서정시·사물의 멜로디·예술에 대하여 외(장혜순) ▲말테의 수기(김용민) ▲시인에 대하여·체험·근원적 음향 외(전동열). — 이권우 기자



고려사학회가 한국사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고려사학회 연구총서> 1차분을 펴냈다. 《고려시대 상서성 연구》(박용운),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최병욱), 《조선 후기 진정과 환국 운영》(문용식), 《조선 후기 지방군제사》(김우철) 등 4권이 우선 출간됐다.

## <고려사학회 연구총서> 1차분 펴내

한국사 최신 연구성과 소개해

이번 연구총서의 특징은 연구성과물의 심사를 강화해 우수한 성과물만을 엄선, 수록한다는 점이다. 고려사학회는 원로·중진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성과와 신진연구자들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2~3차례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 연구수준의 공신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려사학회는 기관지 《한국사학보》에 기간 총서에 대한 서평을 게재해 연구성

과를 공유하고, 논쟁과 토론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학계 해당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의뢰하되, 기존의 내용소개식 서평에서 탈피해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서평을 수록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승주 고려사학회장은 “인문학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의 침체된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연구총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 기자